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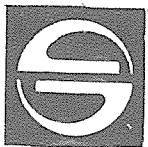
病의 惡魔 파즈즈의 靑銅製 小立像

古代 메소포타미아 文明은 時代에 따라 각각 차이가 있지만 宇宙觀에 관해서는 어떤 기본적인 일치가 인정된다.

原始人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있어서 病은 咀呪이며, 그것은 故意 혹은 不注意에 의해서 도덕, 규범을 범한 죄인이나, 그 가족이나 자손에게 내려지는 神罰이었다. 그러나 의 師는 倫理的인 이유에서 可望이 醫 없 는 患者를 계속 치료해서는 안된다고 징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神에 관계없는 病因도 若干은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은 두려워 하고 있었던 病의 악마 파즈즈의 靑銅製小立像(紀元前 1000~500年頃)

* 루 브르 美術館 소장(파리)



세창치과기공소

752-5970, 778-8687

서울용산구 도동 1가 19-18 (금정빌딩 302)

대표 권혁문